

| 위원회 동정_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 |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선 논의

이지은 전문위원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해 사회안전망위원회 산하 기획단으로 별도 운영 중인 건강보험제도개선기획단은 '18.11.28. 1차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제3차 회의('19.1.9.)에서는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민영건강보험의 실태조사 및 공사건강보험의 관계설정'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서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공·사보험 간



중복부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고,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 연계를 통한 효율적 의료보장체계 구축, 반사이익 환원 방안, 보험자의 합리적 구매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신현웅 연구위원이 ‘건강보험의 지출합리화 및 재원조달’을 주제로 발표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보험료율의 법적상한(8%) 도달이라는 예정된 문제를 대비하여 지출합리화 대책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정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회의(19.1.23.)에서는 ‘건강보험 정책결정 거버넌스와 ‘국민과 효과적인 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국민의료이용 및 비용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정책결정구조(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서 거버넌스 조직별 문제점, 주요 쟁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 각 위원회별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발제에서는 김윤 단장이 독일의 사례를 들며, 건강보험정책심의회위원회의 강화를 위해 의료기술평가 관련 위원회 통합 구성, 사무국 설치, 위원 구성안 등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 노사는 현재 체제에서 가입자 결정권한 및 역할 강화와 구체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고, 정부는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해 단계적으로 연구, 검토할 의지가 있음을 밝혔다.

후자의 논의는 정기택 교수가 제안한 소수의견으로 건강보험관련 소통체계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챗봇 등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발제했고, 노사정 모두 동의를 표하면서 4차 회의를 마무리 했다.

제5차 회의('19.2.7.)에서는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과제로써 필수의료 질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 조성 방안,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제도 개편방안, 건강보험 직영병원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의 역할이나 논의 범위에 대해 참석자별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통해 쟁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기획단은 5차 회의까지 전체 쟁점을 한 번씩 다뤘고, 향후 2~3차례 회의를 진행하여 기획단의 의견 협의안 작성 및 검토 단계를 거쳐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